



침묵을 깬 진실...스크린으로 만나다

4월 광주극장에서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이 만든 다큐멘터리부터 국내외 우수 영화제로부터 작품성을 인정받은 수상작들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인다.

먼저 4일 개봉하는 '세월: 라미르 고즈 온'은 세월호 참사,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씨랜드 수련원 화재 참사, 민주화 과정에서의 국가폭력 등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이 서로에게 묻고 답하며 전하는 세상 끝의 사랑 이야기다. 사랑하는 이를 잃어 무력하기만 한 피해자가 아니라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분투해 온 유가족의 모습은 용기와 위로를 선사한다. 여기에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열 역사를 떠나보낸 고 배은심 여사의 이야기가 더해져 초월적인 연대의 메시지를 던지며 깊은 울림을 더한다.

11일에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의 10년의 세월과 간절한 바람을 담은 아카이브 다큐멘터리 영화 '바람의 세월'이 관객들과 만난다. 영화를 공동 연출한 문종택 감독은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 2학년이 재학 중이던 딸을 잃

사회적 참사 이후 유족 이야기 다룬 다큐부터 베를린·로마 국제영화제 대상 수상작 등 상영

은 아버지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그는 2014년 여름부터 카메라를 들고 (사)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의 거의 모든 일정을 기록해 왔다. 어느덧 모인 5천여 개의 영상과 3천654일의 기록은 영화 '바람의 세월'로 다시 태어났다. 특히 피해자 가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해 한층 뜻 깊은 의미를 가진다.

4·3 이후 76년이 지나서야 밝혀지는 수형인들의 생생한 증언과 그들이 평생 몸담고 있던 아름다운 침묵의 땅 제주도의 풍광을 담아낸 영화 '돌들이 말할 때까지'는 17일 개봉한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치밀하고 성실한 면접 조사를 통해 채록한 4·3 수형인들의 생생한 인터뷰는 감옥에서 살아 돌아온, 시대가 죽이지 못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로 전달된다. 제14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용감한 기러기상 수상, 제18회 아미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뉴 아시안 커먼즈 부문 공식 초청 등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다.

같은 날 스크린에 걸리는 영화 '정순'은 무너진 일상 속에서도 결코 나아감을 잃지 않고, 곧은 걸음으로 나아가려 하는 '정순'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는 영화다.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편견을 가시화했다. 사회적 편견과 취약계층 사각지대의 현실을 담으면서도 주인공 '정순'에 집중해 스스로 치유해 가는 따뜻한 과정을 담았다. 이 영화는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제 대상, 제17회 로마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제7회 아스완국제여성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등을 수상, 전세계 19개 영화제 초청 및 8관왕을 달성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땅에 쓰는 시'도 17일 개봉한다. 선유도공원, 여의도 셋강생태공원, 경춘선 숲길, 서울 아산병

원 등 모두를 위한 정원을 만들어온 조경가 정영선의 땅을 향한 철학과 내일의 숲을 위한 진심을 담았다. '이타미준의 바다', '위대한 계약 파주, 책, 도시' 등 웰메이드 건축 다큐멘터리를 배출해온 정다운 감독의 신작이다. 한국 1호 국토개발기술사(조경)를 획득한 최초의 여성 기술사인 정영선 조경가의 개인 정원에서 모두의 추억이 담긴 여러 공원과 핫플레이스 등 그가 탄생시킨 아름다운 공간을 담아내며 눈과 귀가 즐거운 풍경을 전한다.

24일에는 홍상수 감독의 31번째 장편영화 '여행자의 필요'가 상영을 이어간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2012년 '다른 나라에서' 이후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 영화다. 홍 감독은 이 영화로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 심사위원대상을 5번째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오는 6일 오후 3시40분부터는 '세월: 라미르 고즈 온'을 연출한 장민경 감독을 초대해 관객과의 대화(GV) 시간을 갖는다. 이날 진행은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에서 10번째 활동 중인 지정남 배우가 맡는다. /최영진 기자

목포시립무용단, 전통무용가 5인 초빙 공연

오는 18일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서 心舞주제...전석 무료

목포시립무용단은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목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名舞(명무) 초청 기획공연 '心舞(심무)-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춤에 대한 기예로 유명한 전통무용가 5인을 초청해 근대시대

어려웠던 우리의 고단한 삶을 노래와 춤으로 풀어낸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몸짓이 아니라 마음이 몸에서 우러나는 춤 '심무'를 주제로 흥이 나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다 보니 흥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춤에는 희로애락이 담겨있으며, 춤으로써 마

음에 간직한 희망을 담고 있다.

여는 춤, 있는 춤, 우리의 춤으로 구성된 이번 무대는 시립무용단의 '태평성대'를 시작으로 산조춤 '그 너머의 봄'(유정숙 전 국립극악원 예술감독, 김진걸 산조춤보존회 회장), 세가지 전통리듬(안병주 경희대 무용학과 교수,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부채춤 보유자)을 한국적 춤사위로 선보인다.

이어 잇는 춤으로, 시립무용단의 '규장농월', '락무'(남수정 용인대 무용과 교수, 2023 대한무용협회 무용대

상), '여울'(전순희 서경대 무용예술학부 교수, 대한무용협회 부이사장), '진도북춤'(김선정 무용역사기록학회 회장, 2023 대한민국 무용대상 대통령상 수상)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마무리 공연은 목포시립무용단의 전통기반 창작춤 '삼학학춤'(배강원 예술감독 안무)으로 이뤄진다.

한편,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온라인 티켓링크(예매수수료 별도)에서 예매할 수 있다. /목포=정혜선 기자

장희구 박사 (546)
漢詩 향기품은 번안시조

還目魚(환목어)②-택당 이식
終然風味淡 亦足佐冬醞(종연풍미담 역족좌동시)
國君昔播越 艱荒此海陲(국군석파월 간황차해수)
그래도 씹어보면 그맛이 담박하여
겨울철 술안주로 그런대로 괜찮았지
임금님이 해변에서 고초를 겪으셨네.

겨울철 술안주로는 그런대로 괜찮았겠지



도루묵의 산란철은 봄이다. 도루묵을 먹으면 굵직굵직한 알이 입안에서 꼭꼭 씹히는 느낌이 식감의 묘미를 새삼 느끼게 한다. 도루묵이란 생선은 원래 이름이 목어(木魚)였다고 한다. 선조가 임진왜란 때에 피란길에 처음 먹고 그맛이 별미였다는데서, 그이름을 은어(銀魚)라고

쳐 부르면서 격상시켜 왔다는 전설까지도 전해진다. 전에 임금님이 국가의 난리를 피해 오셔서, 이 해변에서 고초를 겪으실 때도 드셨다면서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겨울철 술안주로는 그런대로 괜찮았지(還目魚)로 제목을 붙여 본 율(律)의 오언율시풍의 2구다.

작가는 택당(澤堂) 이식(李植:1584-1647)으로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1623년 인조반정 후 이조좌랑에 등용되고 1624년 부수찬, 응교, 사간, 집의 등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1625년 예조참의, 동부승지, 우참찬 등을 역임하고 1625년 대사간, 대사성, 좌부승지 등을 지냈던 것으로 알려진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그래도 꼭꼭 씹어보면 그맛이 담박하기가 이를 데 없고 / 겨울철 술안주로는 그런대로 괜찮았지 // 전에 임금님이 국가의 난리를 피해 오셔서 / 이 해변에서 고초를 겪으실 때도 드셨지'라는 시상이다.

위 시제는 '임금님 돌아가자 다시 목어(目魚) 되었네'로 번역된다. 도루묵은 해산물 가운데서 품질이 제일 낮은 등급이다. 번지르르하게 기름진 것도 아닌데다 모양새 또한 불 만한 것이 없었다는 목어에 대한 시상을 꺼내들었다. 한자로는 목어(木魚) 혹은 환맥어(還麥魚)라고 하는데, 시인이 목어(目魚)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과 함께 도루묵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밝혔다.

시인은 그렇더라도 바다에서 잡은 고기인지라 먹어 보면 그진미를 알 수 있다는 도루묵의 진가에 대해 시상의 향연을 이야기한다. 그래도 도루묵은 씹어보면 그맛이 담박해 겨울철 술안주 꼭꼭 씹으면 그런대로 괜찮았다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

화자는 옛적에 임금의 난리가 있어 이쪽으로 와서 이 도루묵을 먹었다는 합리성을 시상으로 꺼냈다. 전에 임금님이 난리를 피해 오셔서, 이 해변에서 고초를 겪으실 때를 상기한다. 이어지는 3수에서는 '목어가 마침 수라상에 올라와서 /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해 드렸지 // 그러자 임금님은 '은어(銀魚)'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 길이 특산물로 바치게 하셨네'라고 하면서 임금 수라상을 떠올렸다. <시조시인·문학평론가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

*한자와 어구
終然: 그래도. 마침내. 風味: 풍미. 여기에선 그 맛. 淡: 담박하다. 亦: 또한. 足佐: 그런대로 괜찮다. 冬醞: 겨울 술안주 // 國君: 임금. 나라의 어른. 昔: 옛적에. 播越: 나리를 피해서 오다. 艱荒: 어렵고 고통스러움. 此海: 이 해변. 陲: 위태롭다. 어려운 시기.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